

외국인 밀집지역 치안 위협요인의 실재(實在) 여부에 관한 연구: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중국인 범죄의 특성을 중심으로

김병학**· 고길곤***· 김대중****

다문화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외국인 범죄, 특히 외국인 밀집지역의 범죄가 새로운 치안 위협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외국인 범죄 문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밀집지역의 범죄 현황에 대한 다차원적인 분석과 그 원인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중국인 밀집 거주지역을 대상으로, 외국인 밀집지역의 범죄 특성과 그 발생 원인을 다차원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근거하여 해당 범죄를 최소화 할 대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의 자료를 이용하여 내·외국인 범죄에 대한 지역별 범죄통계 자료와 현장 인터뷰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중국인 범죄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일반화 선형모형(generalized linear regression) 분석결과에 따르면 전국 기준에서는 살인을 제외하면 중국인 범죄 발생 빈도가 내국인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중국인 밀집지역에서는 살인, 폭력 범죄가 내국인은 물론 중국인 비밀집지역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또한 면담조사결과 대부분의 강력 범죄는 비공식적 사회통제가 부재한 가운데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중국인 밀집지역 고유의 범죄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즉각적 대응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해당 지역에 비공식적인 통제 장치를 강화하기 위한 외국인 명예경찰 제도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외국인범죄, 밀집지역, 사회해체이론

* 본 논문은 제1저자의 석사 논문을 바탕으로 했으며 제2저자는 연구문제 제시 및 설계, 자료분석, 그리고 집필에 제3저자는 자료분석 및 집필에 기여를 하였음. 본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NRF-2011-330-B00195).

** 제1저자, 서울지방경찰청, 경감(doghand@hanmail.net)

*** 제2저자 및 교신저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부교수(kilkon@snu.ac.kr)

**** 제3저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사과정(mannerist@gmail.com)

I. 서론

우리나라의 등록외국인 규모는 최근 10년간 4배 이상 증가하였다. 2012년 1월 기준 외국인 주민¹⁾은 모두 140만 9,577명으로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의 2.8%이다. 이러한 외국인 주민 증가 추세가 지속되면서 한국사회도 다문화사회의 문턱에 진입하고 있다.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은 외국인 밀집지역의 양적 확산과 지리적 팽창을 동반하게 되는데(김은미 외, 2008; Krivo, 1995; Wood & Gilbert, 2005), 필연적으로 일반 국민들의 다문화사회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원숙연, 2008; 장승진, 2010; Chandler & Tsai, 2001).

국민들의 다문화사회에 대한 태도 중 외국인 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된 위협’²⁾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 범죄가 다문화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는 (윤인진, 2011; 이삼식, 2012; 임동진, 2012; 조정인, 2011) 다문화사회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변수임을 보여준다.

한편 외국인범죄에서 특히 주목해야 될 것은 외국인 밀집지역에서의 범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단기외국인 노동자들의 유입과 한국계 중국인의 유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들은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밀집하여 거주한다³⁾. 외국인 밀집지역의 확산은 고유한 치안 위협요인을 배태할 가능성과, 내국인과의 갈등을 확산시킬 가능성이 높다. 특히 중국인 밀집지역은 이러한 갈등 가능성을 상당히 내포하고 있다⁴⁾. 국내 거주 중국인은 781,616명으로 '11년말 기준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인구의 1.54%, 국내 외국인 주민(1,409,577명)의 55.4%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광진구 자양동 등에 집단적인 거주지를 형성하고 있고, 구로구의 경우에는 주류 사회와의 양상도 비교적 뚜렷하다는 점에서 다른 외국인 주민과 차별된다(방성훈 외, 2012: 23).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밀집지역에서의 치안 위협요인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이다. 외국에서는 외국인 밀집지역의 형태와 분포, 그곳에 나타나는 사회경제적 현상과 주변의 주류 민족들 간의 관계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연구되었다(Viviani, 1996; Cornelius & Rosenblum, 2005; Borjas,

1) 외국인 주민 : 장기체류 외국인(90일 이상), 귀화자, 외국인주민자녀

2) 범죄·정체성 위기 등 직접 외국인 이주자들과 경쟁 관계에 있지는 않지만 외국인들의 존재를 위협적으로 느끼고 그로 인해 자신의 상황이나 위치가 불안정해질 것이라고 느끼는 사회심리학적 개념인 ‘인지된 위협(perceived threat)’이 다문화사회에 대한 태도에 중요한 변수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임동진, 2012: 11)

3) 행정안전부에서는 자치구별 외국인 밀집지역을 외국인 1만명 이상 거주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 분류에 따르면 자치구별 외국인이 1만명이 넘는 외국인밀집지역은 서울에 영등포 3.5만, 구로 2.6만, 광진 1.3만, 용산 1.2만, 동대문 1.2만 등 9개 區이며(중국인이 가장 많은 區는 영등포 3만, 구로 2.5만 順). 중국인 거주 비율이 가장 많은 洞은 구로구 가리봉동으로, 중국인 6,595명이 거주하며 이는 전체 주민 27,050명의 24.3%에 해당(‘서울 통계 <http://stat.seoul.go.kr>’, '12년 1월 기준)

4) 「마찰·갈등 번지는 ‘조선족 혐오」(’12.4.10, 문화일보), 「<현장르포> 경찰들도 몸 사리는 혐오의 거리 ‘조선족타운」(’10.4.26, 일요시사).

2002; Massey & Denton, 1993). 이에 반해 국내 연구는 외국인의 지역적 분포, 직업, 생활수준 등 현황 위주로 수행되고 있다(김은미 외, 2008; 박세훈 외, 2009; 박윤환, 2010; 이상준, 2007; 최은영, 2003). 물론 최근 들어 외국인 밀집지역에 발생하는 갈등, 의식변화 등의 현상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나(박윤환, 2010; 오경석, 2009; 이노미, 2011; 방성훈 외, 2012; 윤영환, 2009; 전대양, 2011; 조현미, 2006) 범죄현상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 또한 범죄 현상을 다룬 일부 연구(최영신 외, 2012; 윤영환, 2009; 전대양, 2011; 김윤영, 2007; 김윤영 외, 2012) 역시 ‘외국인 밀집지역 범죄 증가에 따른 대처 필요’ 등 원론적인 분석에 머무르고 있다.

다문화사회 진입을 앞둔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밀집지역의 치안 위협요인에 대한 실증연구가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미진하다면 일반 국민의 치안불안감을 제대로 해소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오원춘 여대생 토막살인 사건 이후 확산된 막연한 불안함으로 인해 외국인 밀집지역에는 그곳만의 특유한 범죄가 만연할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에 기반하여 객관적인 분석 없이 정책을 수립한다면 잘못된 문제 정의에 기반하여 정책을 수립하는 3중 오류(type III error)를 범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첫째, 최근 5년간('08~'12)의 경찰청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중국인들이 범죄가 심각하다는 인지된 위협(perceived threat)이 실제적 위협(substantive threat)인지를 실증적으로 밝힌다. 둘째, 일반적인 중국인 범죄와 중국인 밀집지역에서의 범죄 유형의 차이를 살펴본다. 중국인 밀집지역 발생범죄의 특이성을 밝히기 위해 더미 변수를 이용한 일반화 선형모형(generalized linear regression)을 사용하여 국내 전체 그리고 서울특별시의 중국인 범죄 통계와 다차원적으로 비교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국인 밀집지역에서 다른 지역과 구분되는 범죄 특성이 발견된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해당 지역 주민, 관련 전문가와의 면담조사를 통해 밝히고 외국인 밀집지역의 치안 위협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탐색해본다.

II. 이론적 논의와 선행 연구 검토

본 연구와 관련된 이론적 논의를 선행연구 중심으로 살펴본다. 첫째, 외국인 범죄의 발생 원인을 설명하는 이론을 살펴본다. 둘째, 외국인 범죄의 인식과 실제 발생된 외국인 범죄와의 괴리가 왜,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이주민에 대한 인식과 외국인 밀집지역의 형성과 그 성격을 고찰한다.

1. 범죄발생의 지역 환경기반 이론

외국인 밀집지역의 범죄발생 빈도가 높을 것이라는 가설은 범죄 원인을 지역 환경에서 찾는 논의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는 크게 사회해체이론(social disorganization theory)과 무질서이론(disorder theory)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자는 Shaw & McKay가 20세기 초 시카고 시 중심부와 인접한 빈민가와 우범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해당 지역에서는 약 20여년간 주민들의 인종 구성이 계속 변화해 왔는데도 청소년 비행이 높은 수준으로 지속되었는데, 그 이유는 이를 묵인하고 지지하는 전통 때문이었다. 이 이론에서는 범죄의 발생 원인이 사회적 통제의 해체에 근거하며, 범죄도 동조 행위처럼 사회적으로 전달되고 학습된 문화적 행위라는 점이 강조된다⁵⁾ 이러한 사회해체이론은 도시화에 따른 사회해체가 범죄와 일탈을 유발하고 범죄와 일탈은 다시 사회해체의 증거가 되는 순환론적 정의에 기반을 둔다는 점, 또한 사회해체의 원인 및 범죄와의 명확한 관계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방성훈 외, 2012: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해체이론의 주요 변인들의 영향력이 경험적으로 검증(Sampson & Groves, 1989; 이성식, 1997)⁶⁾되고 학계의 지속적인 수정·보완을 받으면서 대표적인 지역특성기반 범죄이론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사회해체이론의 관점에서 외국인 범죄 발생의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지역사회 구성원의 균질성이 높아 비공식적인 사회적 통제 정도가 높은 지역에 이질적인 외국인 주민의 진입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경우, 이들은 지역사회에 동화되기보다는 고유의 문화를 고수하여 외국인 밀집지역을 형성하기 쉽다. 이 때 해당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문화의 이질성이 증가함과 동시에 비공식적인 사회적 통제 정도도 감소하게 된다. 여기서 사회적 통제는 특히 우발적인 범죄를 제어할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외국인 밀집지역의 형성 전과 같은 수준으로 우발적 범죄의 발생을 통제하기 어렵게 된다.

후자의 무질서 이론은 도시 거주민들이 체감하는 치안불안감에 대한 연구에서 시작되었다(Wilson, 1975). 도시 주민들이 느끼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개별 범죄보다는, 배회하며 소란을 피우는 청소년, 노숙자, 빈집, 방치된 쓰레기 등과 같은 ‘물리적 상태 악화(physical deterioration)’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Garofalo & Laub, 1978). 이후 물리적 상태의 악화를 나타내는 반사회적 징표(symbols of Incivility)와 높은 범죄발생률과의 상관성이 구체화⁷⁾되고(Hunter, 1978), 이러한 상

5) 홍세영(2011)에서 일부 재인용

6) 지역경제수준, 인종의 다양성, 인구가동률, 결혼가정률, 도시화 정도 등이 지역 유대망, 지역조직활동 참여도, 문제청소년들에 대한 통제력 등에 미치는 영향

7) Hunter.A는 1978년 미국 범죄학 컨퍼런스(American Society of Criminology Conference)에서 발표한 논문(Symbols of incivility)을 통해, 무질서는 반사회적 요소와 범죄로 표출되고, 이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으로

태의 방치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범죄까지 유발한다는 ‘깨진 유리창이론(broken window theory)’이 등장하였다(Kelling & Wilson, 1982). 이러한 무질서 이론은 범죄발생 통제를 위해 공식적인 사회통제에 지나치게 의존하며, 일련의 반사회적 징표들이 범죄관련 기제를 나타낼 뿐, 범죄원인은 아니라는 비판을 받았다(방성훈 외, 2012: 8). 그러나 반사회적 징표, 범죄와 범죄두려움의 상관관계(Lewis & Salem, 1986), 반사회적 징표가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Skogan, 1990)이 존재한다는 실증연구결과는 무질서가 직·간접적으로 범죄 발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을 지지하고 있다.

무질서 이론의 관점에서는 외국인 밀집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과 이를 개선할 지방정부의 의지 및 정책 부재에 따른 물리적 환경 악화가 범죄의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역으로, 해당 지역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한다면 범죄 발생을 억제할 수 있다는 범죄예방 환경설계(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PTED) 관점의 대안 제시가 가능할 수 있다(강석진, 2013).

2. 범죄 인식에 기반한 이론

범죄 인식에 대한 연구는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불안감(fear of crime)을 중요한 변수로 본다(박동균, 2003; 민수홍, 2011; 이영식 외, 2008; 이성식, 2000; 홍영기, 2010; Jackson, 2004; Taylor, 1999). 이러한 범죄 인식에 대한 연구는 1967년 미국 대통령 범죄위원회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피해자 뿐만 아니라 일반대중들의 삶의 질도 악화시킨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한 이후부터 주목받기 시작했다(민수홍, 2011: 3).

범죄인식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객관적인 범죄 통계와 사람들의 범죄 인식 차이(discrepancy)에 관한 연구와, 이러한 범죄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소에 대한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객관적인 범죄발생 수준과 인식간의 차이에 관한 연구는 시민들의 범죄에 대한 인식이 객관적인 범죄 상태 및 현상의 결과라기보다는 개인이 인지하게 되는 무질서·사회통제 메커니즘 등의 다양한 주관적 요소에 영향을 받는다고 본다(박순진, 2012; 방성훈 외, 2012; 이성식, 1997; Taylor, 1999; Hunter, 1978). 실제로 실증연구 결과에서는 연구 기간동안 범죄율이 감소해도 사람들은 범죄율이 증가하였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Maguire & Pastore, 1999; Roberts & Indermaur, 2009; 박순진, 2012; 황지태, 2009).

범죄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소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범죄 인식의 정도는 성별과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이를테면 여성과 노인은 실제 범죄피해율이 남성과 젊은층에 비해 적음에도 불구하고 범죄 두려움은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Davis & Dossetor, 2010). 언론 등의 영향으로

귀결된다고 역설(Taylor, 1999)

자기 거주지역에 비해 타 지역 또는 사회 전체에서 발생하는 범죄가 실제 범죄 통계와는 무관하게 더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박순진, 2012; 이병기 외, 1995; 김은경 외, 2009; Garofalo, 1979; 최인섭 외, 1997; 박동균, 2003).

이런 관점에서 외국인 밀집지역의 범죄 발생 문제를 고찰하면 전혀 다른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즉, 외국인 범죄에 대한 인식은 물론, 중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은 실제 범죄 발생 행태 및 빈도와 상관없이 과장되었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가설이 지지된다면 외국인 범죄의 현황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외국인 범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초래하는 역기능을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3. 이주민(외국인 유입)에 대한 인식과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연구

이주민에 대한 태도와 인식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활발히 진행되어왔다. 현재 경제상황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수록 이주민들에 대해 호의적인 인식을 갖는다는 연구(Chandler & Tsai, 2001)가 있는 반면, 이주민에 대한 태도는 주로 이주민이 소속된 국가의 경제적 측면에 대한 주관적 평가에 의해 영향을 받을 뿐,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상반된 연구도 있다(Fetzer, 2000; Citrin et al., 1997). 한편 소수집단이 기존 사회 질서와 기득권에 대한 위협으로 인지된다면 외국인들이 주류사회에 통합되지 못하고 오히려 배제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Jackson et al., 2001; 원숙연, 2008. 이러한 외국인에 대한 배제는 인종적 정체성과 강한 상관관계를 보이기도 한다(Jones & Smith, 2001). 또한 이주민들에 대한 고정관념(Dustman & Preston, 2007)이나 특정 사건으로 인한 감정적인 차원에서 비롯된 오해에 기반하기도 한다(Cornelius & Rosenblum, 2005).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외국인 외국인 범죄에 대한 인식이 실제 수준과 괴리되어 부정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한편 한국인들은 전반적으로 다문화사회 진입에 긍정적이나, 개인적인 피해가 있을 수 있는 범죄, 일자리 등에서는 부정적인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장임숙, 2011; 조정인, 2011; 임동진, 2012; 장승진, 2010; 양계민, 2009; 윤인진 2011; 지종화, 2009; 문경희, 2006). 기존 연구에서 주목할 점은 외국인 유입에 따른 노동공급, 다양성의 증가와 같은 긍정적인 시각(Barro et al., 1992; Florida, 2002)보다는 마찰, 단절 등으로 대표되는 부정적인 인식(Berman, 1997; 박재영, 2008; 김기현, 2011; 염운옥, 2011)이 더 부각되고 있는 점이다.

외국에서 다문화사회의 부정적인 결과는 인종적 밀집지역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져 왔다. 인종적 밀집지역(ethnic enclave)에 대한 연구는 이주민족과 기존 거주 민족간의 거주지 분리(residential segregation) 현상을 설명하면서, 외국인 밀집지역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거주지 분리 현상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민족간 격리 및 주류민족과의 갈등, 마찰로 인해 발생한다는 구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Rex & Mason, 1986).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외국인 밀집지역의 범죄발생 요인에서 외국인의 밀집은 원인이 아닌 결과이기 때문에 밀집 자체보다는 기존 거주민과의 갈등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야 할 것이다.

반면 이주민들이 주류사회에 적응하면서 응집력이 약화되며 지역사회에 동화되는 현상도 나타난다(Cwerner, 2001). 또한 문화적 다양성의 확보로 인해 사회적 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있다(Wood & Gilbert, 2005; Krivo, 1995). 이러한 현상은 외국인 밀집지역의 범죄 발생이 실제로는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국내의 연구에서는 외국인 밀집지역의 형성과정과 특징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박세훈(2010)에 따르면 외국인 밀집지역은 개인이주, 가족·친족 네트워크 형성, 공동체 및 경제인프라 구축, 영구정착지 형성 및 소수민족의 정치화라는 네 단계를 거쳐 형성된다고 보았다. 동일한 관점의 연구를 수행한 방성훈 외(2012)는 일반적으로 한국은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과정에 있으나, 국내 중국인의 경우 그 정착역사가 길고 수적으로도 우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투표권을 앞세우며 이익단체화 조짐을 보이고 있어 마지막 단계인 ‘영구정착지 형성 및 소수민족의 정치화’에 이르고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주요 기존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첫째, 중국인은 경제적인 이유에서 주로 입국하지만, 이후 점차 한국에 정주하려는 의식이 형성된다(김현선, 2010). 둘째, 중국인들은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집단화·조직화가 나타나는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이해관계에 따라 이합집산하는 등 통합과 분열의 현상이 동시에 나타난다(김영로, 2011). 셋째, 중국인 밀집지역인 경기도 안산시 원곡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외국인 주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확산, 내·외국인 주민들의 거주기피 강화, 외국인 주민 고령화 현상이 나타난다(오경석, 2009). 넷째, 중국인들의 밀집 주거지 중에서 광진구 자양동이 주류 사회와 융화되는 현상을 보이는 반면에, 구로구 가리봉동은 한국계 중국인들의 초기 정착지로서 월세 형태의 단기 체류자가 많고 폐쇄적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어 주류 사회와의 단절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방성훈 외, 2012).

일부 연구에서는 제한적으로 외국인 밀집지역 범죄에 대한 연구들이 시도되었다. 최영신 외(2012)는 구로구, 영등포구, 안산시 단원구, 경기도 시흥시 등 4대 외국인 밀집지역의 내·외국인 범죄유형 및 검거인원을 비교한 결과, 5대 범죄⁸⁾가 전국 평균을 현저하게 상회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대상지역이 주로 서울, 경기 지역에 한정되어있는데 반해, 전국 통계를 비교의 기준으로 삼아, 비교가능성이 제한적이다⁹⁾. 뿐만 아니라 국내 외국인 범죄가 주로 중국인 또는 동남

8) 살인, 강도, 성폭력, 절도, 폭력. 성폭력은 강간·강제추행을 지칭함. 사이버경찰청 경찰통계 참조

<http://www.police.go.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192> ('13. 11. 13 검색)

9) 서울, 경기 및 전국 주요 대도시는 전국 통계에 비해 5대 범죄 등 강력범죄 발생 빈도가 월등하게 높다(김준

아인에 치중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인구 전체에 근거한 범죄율 지수를 근거로 판단한 것도 한계로 지적할 만 하다¹⁰⁾.

4. 선행연구 검토의 시사점

위에서 검토한 기존 연구들을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외국인 범죄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과, 외국인 밀집지역이 범죄 발생에 미치는 영향, 또는 범죄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양한 이론이 존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원인을 규명하는 서로 다른 이론(범죄발생의 사회해체이론과 무질서이론)이 공존하고 있다. 또한 아예 그러한 인식 자체가 오류일 수 있다는 이론(범죄인식에 대한 이론)도 존재하고 있다. 그렇다면 즉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범죄가 더 많이 발생할 것이라는 인식을 실증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 나타난 범죄통계 비교의 오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외국인 밀집지역의 범죄 특성을 비교하는 정확한 준거집단을 설정하여 다차원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만약 내국인과 차별화되는 외국인 밀집지역의 범죄가 더 많이 발생한다면 그 특성이 무엇인지를 면접조사 등을 통해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는 기존 외국인 범죄 연구에서 범죄발생 원인에 대한 다양한 이론 중 어느 것이 타당성을 지니는지 판단하고, 그에 따라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기 때문이다.

Ⅲ.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1. 구로구 중국인 밀집지역의 특성

본 연구에서는 구로구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여 중국인 밀집거주지역의 치안위험을 고찰한다. 구로구에는 1992년 한·중수교와 함께 한·중간 인적교류가 확대된 이후 산업연수생 신분의 중국인들이 값싸고 교통여건이 양호한 구로공단의 쪽방 밀집지역에 들어오면서 중국인 밀집지역이 형성되었다(윤영환, 2009; 김은미 외, 2008; 박세훈 외, 2009; 김현선, 2010). 이후 구로구 가리봉동을 중심으로 중국인 상권이 형성되고 외국인 노동인력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구로구의 중국인은 2012년 약

호 외, 2001: 12-13). 따라서 전국 평균 비교보다는 해당 지역의 내국인 또는 전체 범죄 통계와 비교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10) 2011년 기준 전체 체류외국인(1,395,077) 중 체류인구가 많은 선진국 3곳(미국, 일본, 캐나다) 인구는 212,114명으로 체류외국인의 15.2%에 해당하나, 5대 범죄율은 전체 외국인 37,542건 중 미국(2690건), 캐나다(439건), 일본(204건) 등 총 3,333건으로 체류 외국인 범죄의 8.8%에 불과. (2011 법무부 외국인출입국 통계 및 '최영신 외' 논문 표3-4 국적별 죄명 분포)

25,000명에 이르는 등 10여년 만에 약 40배로 급증하였다¹¹⁾. 최근에는 중국인 세대이동 성격의 이주가 진행되는데, 이들은 부모 세대가 만들어놓은 사회적, 인적 인프라를 통해 한국에 정착하는 현상을 보이기도 한다(김현선, 2010: 20).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구로구 거주 중국인들은 불법체류자 신분이 다수였다. 따라서 구로 지역의 상가 및 인프라 형성은 정부의 불법체류자 단속 등으로 인해 그리 활발하지 못했다(김현선, 2010: 15). 그러나 방문취업제 시행으로 불법체류자가 감소함에 따라 구로구 가리봉동을 중심으로 중국인 커뮤니티가 본격적으로 형성되었다. 또한 이 시기부터 구로구 이외의 영등포구, 금천구 등 서남권 중심의 중국인 거주지가 확대되기 시작했다(박세훈 외, 2009: 132). 이중에서도 구로구는 저렴한 주거비용 및 편리한 대중교통망, 중국인 관련 각종 인프라 등으로 인해 주로 저소득층, 노동자층 중국인의 국내 유입시 초기 정착지와 같은 장소가 되었고, 현재까지도 대표적인 국내 중국인 밀집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다(방성훈 외, 2012; 김현선, 2010). 그러나 중국인 간의 밀접한 관계 및 교류와는 달리, 한국 주민과의 교류는 거의 단절되어 있다(김영로, 2011: 19).

구로구 중국인 밀집지역의 구성원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구로구는 영등포구에 이어 서울에서 두 번째로 중국인이 많이 거주(25,303명, '12년말 기준)하는 지역으로서, 중국인 중 90.3%인 22,852명이 한국계 중국인이다. 특히 구로에 소재한 가리봉동은 서울의 동 단위에서 가장 많은 비율의 중국인(6,595명)이 거주하는 지역이기도 하다. 둘째, 구로구 거주 중국인은 40대 이상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최영신 외, 2012: 129), 특히 가리봉동 거주 중국인의 50%가 단신으로 입국하였다. 이중 단순 노무직이 78.6%, 월 15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 또한 61.8%에 이른다(방성훈 외, 2012: 19).

다음으로 구로구의 환경적 특성으로 열악한 물리적 여건을 들 수 있다. 버려진 공·폐가가 다수 존재하며, 좁고 어둡고 막다른 골목으로 연결되어있는 폐쇄형 구조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열악한 주거환경은 한국인들과도 상대적으로 단절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주점, 노래방, 여인숙 등 유흥·숙박시설 등이 다수 밀집되어있는데, 특히 가리봉동은 주변 상가의 70%가 술을 파는 유흥 시설이라고 평가(방성훈 외, 2012: 11)될 정도로 유흥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이러한 낙후된 주거 환경은 부정적 지역 이미지 확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한국 주민들에게는 밤이 되면 접근하기 불편하고 두려운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다(박세훈 외, 2009: 1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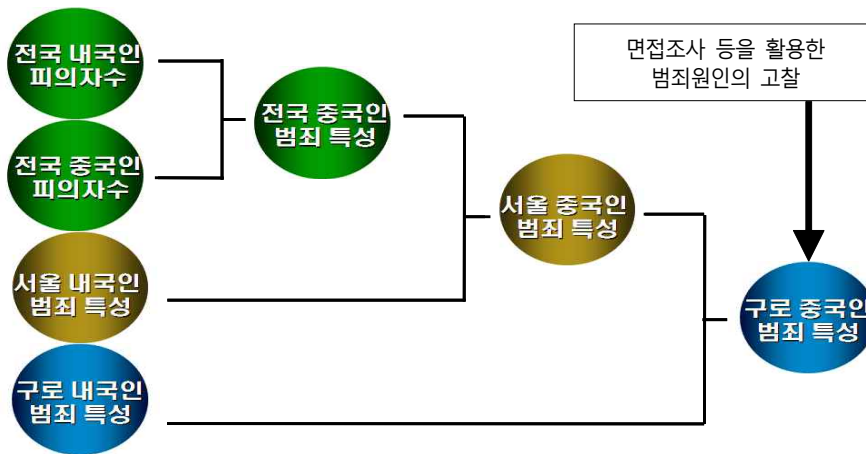
이렇듯 구로구는 중국인의 이주역사가 오래되어, 타 지역에 비해 중국인 인구 수와 비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자연스러운 중국인 커뮤니티가 생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기존 지역의 한국인들과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지역 내 교류도 부족하다. 따라서 중국인 밀집지역의 대표성을 충분히 지닌다고 할 수 있다.

11) 서울 통계 <http://stat.seoul.go.kr>

2. 분석의 틀

본 연구는 피해가 직접적이고 통계오류가 적은 5대 범죄(살인, 강도, 성폭력, 절도, 폭력)¹²⁾을 기준으로 하여 중국인 범죄 및 중국인 밀집지역 범죄의 특성을 다차원적으로 고찰하는 것을 1차 분석 목표로 한다. 또한 1차 분석 결과 그러한 범죄의 특성이 내국인 범죄와 차별화될 경우, 그 성격과 발생 원인에 대해 고찰하는 것을 2차 목표로 한다. 이때 핵심적인 문제는 분석대상인 중국인 밀집지역의 범죄 특성의 준거 대상을 무엇으로 삼는가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력범죄 발생비율이 낮은 전국 통계와 비교한 기존 연구(최영신 외, 2012)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시 지역에 소재한 외국인 밀집지역의 범죄 발생 빈도 및 형태와 비교가능성이 높은 서울특별시의 범죄 통계를 중간 수준(messo level)의 분석에 도입하는 한편, 동일 지역인 구로구의 한국인 범죄 통계를 미시적 수준(micro level)의 분석에 도입하여, 분석의 타당성 향상을 시도하였다. 마지막으로 중국인 밀집지역에서 발생하는 중국인 범죄의 특성이 차별적으로 나타난다면, 그 발생 원인을 면접조사 등을 활용하여 고찰한다. <그림 1>에서는 본 연구 분석의 틀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 1> 연구 분석의 틀



3. 연구문제

위의 연구의 틀에 의거,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각 단계에 따라 고찰한다.

12) 각 범죄의 미수범 포함.

1) 거시적 수준(macro level)의 연구문제: 국내 중국인 범죄의 일반적 특성

거시적 수준에서 중국인 범죄가 과연 내국인 범죄와 차별되는 특성을 지니는지를 우선적으로 파악한다. 첫째, 전국의 중국인과 내국인 범죄의 유형별 발생 빈도에 차이가 있는가를 고찰한다. 둘째, 만약 차이가 있다면, 전국의 중국인 범죄는 내국인과 비교하여 어떠한 특성을 가지는지 살펴본다.

2) 중간 수준(messo level)의 연구문제: 서울 중국인 범죄의 특성(비밀집 지역간의 비교)

선행연구 분석에서 지적인 바와 같이, 전국 단위의 범죄 통계는 범죄발생빈도가 상이한 도시-농어촌 지역을 모두 포괄하고 있어 도시지역에 소재한 밀집 지역 중국인 범죄와 비교시 그 타당성이 의심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인 구로구 중국인 밀집지역의 범죄는 도시부 비밀집지역과 비교함이 타당하다. 그리고, 만약 차이가 나타난다면 서울의 중국인 범죄는 내국인과 비교하여 어떠한 특성을 가지는지 살펴본다.

3) 미시적 수준(micro level)의 연구문제: 중국인 밀집지역 범죄의 특성(밀집지역과 비밀집지역간의 비교)

이제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인 밀집지역의 범죄가 차별화되는 특성을 지니는가를 고찰하기 위해 구로구의 중국인 범죄를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각각 살펴본다. 첫째, 구로구 내의 내국인과 중국인간의 범죄 발생 행태 및 유형 간의 차이를 비교한다. 둘째, 서울특별시 중국인 및 내국인 범죄 행태 및 유형 간의 차이를 비교한다. 셋째, 전국의 중국인 및 내국인 범죄의 발생 행태 및 유형 간의 차이를 비교한다. 마지막으로 중국인 밀집지역의 범죄 발생 행태의 특이성이 나타난다면, 그 원인은 어디에 기인하는가를 면접조사를 통해 고찰한다. 면접은 중국인 범죄 관련 전문적이고 실무적인 지식을 가진 경찰관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4개월('13.3~6월)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그 대상은 <표 1>과 같다.

<표 1> 면접조사 대상자 및 면담 방법

연번	구분	근무(거주)지	면담 방법	선정 사유
1	경찰관	경찰청 외사정보과	전화, 경찰메신저	5년이상 중국인 범죄 관련 업무 종사
2	경찰관	서울지방경찰청 외사과	전화, 경찰메신저	5년이상 중국인 범죄 관련 업무 종사
3	경찰관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전화, 경찰메신저	5년이상 외국인 범죄 관련 업무 종사
4	경찰관	경찰서 112신고센터	전화, 경찰메신저	중국인 범죄 등 신고사건 처리 종사
5	주민(男 40대)	구로구	방문 면담	한국계 중국인, 식료품점 운영
6	주민(女 40대)	구로구	방문 면담	한국계 중국인, 중국 음식점 운영
7	주민(女 50대)	구로구	방문 면담	한국계 중국인, 호프집 운영

4.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연구문제의 검증을 위해, 대상 지역별 인구 10만명당 5대 범죄의 피의자 수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더미변수를 이용한 일반화 회귀모형(generalized linear model)을 통해 분석하였다.

1) 자료의 수집

인구 10만명당 피의자 수는 범죄 관련 주요 논문(최영신 외, 2012; 김준호 외, 2001)뿐만 아니라 관련 국제공식통계인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 and Crime(UNODC)에서도 사용하는 지표로서 널리 사용될 뿐만 아니라 지수간 비교가 용이한 장점이 있다. 이러한 지표를 사용하기 위해 지역별·년도별 인구 자료는 통계청(www.kostat.go.kr)과 서울 통계(stat.seoul.go.kr)에서 제공되는 통계를 사용하였다. 또한 지역별 범죄피의자 및 피의자의 국적 통계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의 범죄통계를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이 통계를 바탕으로 최근 5년간('08~'12) 대상 지역의 내국인 및 중국인의 5대 범죄 피의자수의 자료를 구성하였다.

2) 더미변수를 이용한 일반화 회귀모형 분석

더미변수를 이용한 일반화 회귀모형분석은 여러 집단간의 차이를 동시에 살피는 데 효과적이다. 중국인 밀집지역의 범죄 변동을 지역별, 연도별로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더미변수를 이용한 일반화 회귀모형을 구성하였다.

$$\text{범죄율} = \beta_0 + \beta_1 \text{지역더미} + \beta_2 \text{내외국인더미} + \beta_3 \text{지역더미} * \text{내외국인더미} + \beta_4 \text{연도더미} + \epsilon$$

이 때 지역 더미변수는 전국을, 내·외국인 더미변수는 중국인을, 연도 더미변수는 2012년을 기준값(0)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지역에 따라 외국인 범죄의 발생 빈도가 차이가 날 것이라는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교호작용(interaction term)을 포함하였다. 이렇게 설정할 경우 해당 모형의 각 계수값을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β_1 은 중국인 10만명당 피의자 수의 전국 - 지역별(구로, 서울) 차이를 나타내고, β_2 는 전국 기준의 10만명당 피의자 수의 내국인 - 중국인 차이를 나타내며, β_3 는 10만명당 피의자 수의 내국인 - 중국인 차이에 대한 전국과 지역(구로, 서울)의 차이를 나타낸다. 그리고 β_4 는 2012년과 각 연도별(2008 ~ 2011년) 차이를 나타낸다.

한편 교호작용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개별 회귀계수의 크기를 해석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최소제곱평균(least mean square)값을 이용하여 지역과 내·외국인에 따라 차이가 어떻게 달

라지는지를 살펴보았다. 한편 범죄유형별로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5대범죄 전체, 그리고 개별 5대 범죄에 대해서도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3) 중국인 밀집지역 범죄 특성 발생 원인에 대한 고찰

이러한 분석을 통해 지역별 범죄유형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을 고찰하기 위해 구로구 거주 주민 및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과의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대상자 및 면담 방법은 상기 <표 1>에서 제시한 바와 같다.

IV. 분석결과

1. 기술통계 분석

다음 <표 2>에서는 지역별 내국인-중국인 5대 범죄 피의자수를 비교하였다.

<표 2> 지역별 내국인-중국인 5대 범죄 피의자수 비교('08-'12년 평균)

(단위: 인구 10만명당 검거인수)

구분		5대범죄	살인	강도	성폭력	절도	폭력
전국	내국인	1,095	24	11	33	221	827
	중국인	937	11.2	13	16	115	782
서울	내국인	1,318	24	16	46	241	1,015
	중국인	1,033	11.1	14	19	116	873
구로	내국인	1,365	2.9	20	38	269	1,036
	중국인	1,781	20.0	23	19	140	1,580

전국 및 서울에서는 내국인의 범죄 피의자수가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전국과 서울의 내국인 범죄 발생 빈도와 중국인 범죄 발생 빈도 역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이한 것은 구로 지역의 5대 범죄 발생빈도이다. 이곳에서는 중국인의 5대 범죄 발생빈도가 전국 및 서울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폭력범죄의 높은 빈도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역단위에 관계 없이 살인사건의 발생빈도가 중국인의 경우에 매우 높게 나타났다.

2. 범죄유형별 범죄 유형의 차이

다음 <표 3>는 범죄유형별 범죄 빈도의 지역-내·외국인간 차이에 대해 일반화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종속변수가 강도인 경우를 제외하면 F-test를 통한 모형의 적합도는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결정계수(R²) 역시 강도인 경우를 제외하면 모두 0.75를 상회할 정도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강도 범죄를 제외하면 모형의 전체적인 적합성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표 3> 범죄유형별 범죄발생빈도의 차이에 대한 지역-내·중국인 회귀분석 결과

변수	5대범죄		강도		살인		성폭력		절도		폭력	
	추정치	SE	추정치	SE	추정치	SE	추정치	SE	추정치	SE	추정치	SE
절편	1,018.34 (***)	104.78	9.96 (*)	5.14	8.34 (***)	2.89	20.21 (***)	3.18	98.82 (***)	16.90	882.21 (***)	98.14
구로	844.47 (***)	114.78	9.11	5.63	8.84 (**)	3.16	2.93	3.49	25.52	18.51	798.07 (***)	107.51
서울	96.14	114.78	0.28	5.63	-0.05	3.16	3.62	3.49	1.45	18.51	90.84	107.51
내국인	157.98	114.78	-2.26	5.63	-8.78 (**)	3.16	17.05 (***)	3.49	106.48 (***)	18.51	45.48	107.51
구로 *내국인	-574.59 (***)	162.32	-0.71	7.96	-8.3 (*)	4.48	2.58	4.93	22.19	26.18	-589.64 (***)	152.04
서울 *내국인	127.27	162.32	4.84	7.96	0.05	4.48	9.49 (*)	4.93	17.71	26.18	97.02	152.04
2008	-89.22	104.78	1.48	5.14	6.98 (**)	2.89	-11.22 (***)	3.18	-18.08	16.90	-70.11	98.14
2009	-70.46	104.78	10.88 (**)	5.14	2.42	2.89	-5.11	3.18	25.42	16.90	-105.38	98.14
2010	-169.80	104.78	8.30	5.14	4.54	2.89	-2.27	3.18	56.66 (***)	16.90	-238.67 (**)	98.14
2011	-78.02	104.78	-3.37	5.14	0.24	2.89	-4.34	3.18	16.50	16.90	-88.41	98.14
F (p-value)	8.21 (0.00***)		1.83 (0.13)		6.53 (0.00***)		5.75 (0.01**)		17.43 (0.00***)		8.95 (0.00***)	
R ²	0.79		0.45		0.75		0.87		0.89		0.80	

주: *** p<0.01, ** p<0.05, * p<0.1

먼저 5대 범죄 전체를 살펴보자. 전국에서 내국인과 중국인 범죄의 10만명당 발생 빈도에서는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전국과 서울을 비교해보더라도, 아래 <표 4>에서 나타난 최소제곱평균값을 기준으로 보면 10만명당 추정 5대 범죄 피의자수가 중국인의 경우 1032.98명으로 전국의 936.84명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유의수준 5%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달리 구로구의 경우에는 내국인의 경우 서울지역이나 전국지역과 비교해서 5대 범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인 범죄의 경우에는 서울의 추정치 1032.98명보다 훨씬 많은 1781.31명으로 추정된다. 또한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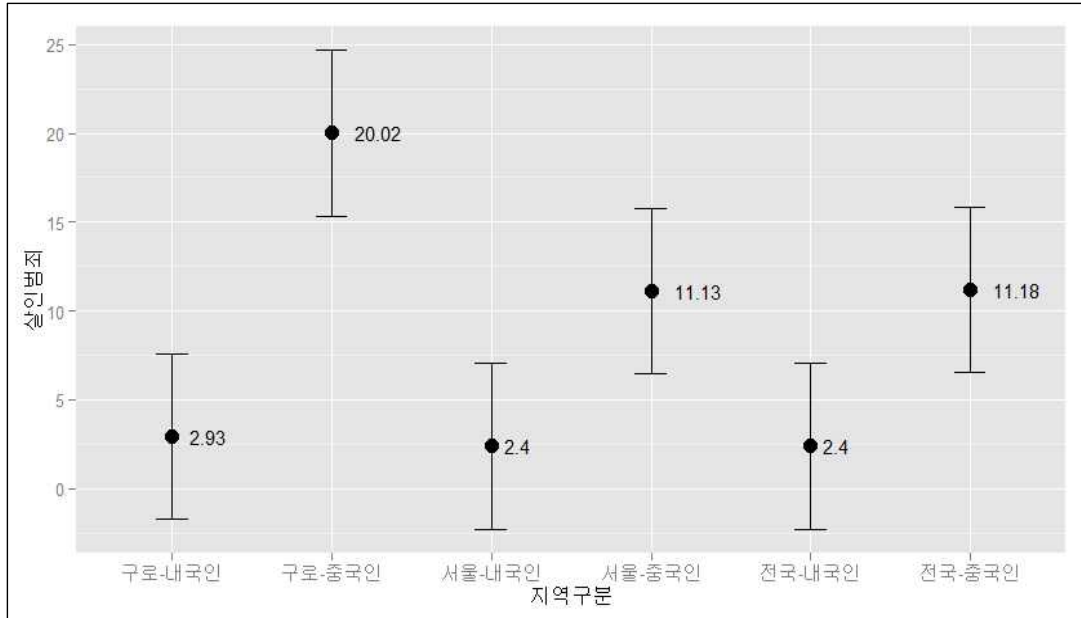
<표 4> 5대 범죄 전체의 범죄 발생 빈도의 지역별, 내·중국인의 차이 (최소제곱평균)

지역	내·외국인	least square mean	95% 신뢰구간	
구로	내국인	1,364.70	1,195.41	1,534.00
구로	중국인	1,781.31	1,612.02	1,950.61
서울	내국인	1,318.23	1,148.93	1,487.52
서울	중국인	1,032.98	863.68	1,202.27
전국	내국인	1,094.82	925.52	1,264.11
전국	중국인	936.84	767.55	1,106.14

이렇듯, <표 3>와 <표 4>에서 나타난 범죄유형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중국인 밀집지역인 구로구 중국인의 범죄 유형은 서울이나 전국지역과 구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폭력에서는 전국과 서울에서 중국인과 내국인의 범죄율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중국인 밀집지역인 구로구에서는 중국인의 폭력 범죄 발생 빈도(1579.76)가 내국인의 폭력범죄 발생 빈도(1035.61)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특히 5대 범죄에서 중국인 범죄가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살인이다. 아래 <그림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전국, 서울, 구로구 지역에서 모두 중국인의 살인 범죄 발생 빈도가 내국인보다 크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중국인 밀집지역인 구로구의 경우 중국인의 살인 범죄 발생 빈도가 동일지역 내국인에 비해 10배 가까이 큰 것으로 나타나, 중국인 밀집지역에서 살인범죄의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 살인 범죄의 지역별-내·중국인별 차이(최소제곱평균과 95%신뢰구간)

(단위: 10만명당 발생 건수)



주: 그림에 나타난 수치는 지역-내·중국인 집단의 최소제곱평균(least square mean)을 나타내며, 실선으로 95% 신뢰구간을 나타내었음

3. 중국인 밀집지역(구로구)의 중국인 범죄의 특성

이상의 통계분석 결과를 근거로 중국인 밀집지역(구로구)의 중국인 범죄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아래 <표 5>는 위 회귀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O는 중국인 범죄 발생이 높고, 통계적으로도 그 차이가 유의미한 경우를 나타낸다. 그 반대의 경우는 X로 표시하였다. 이를 보면 지역별 중국인-내국인간 5대 범죄 비교에서 살인사건은 항상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살인사건의 발생 빈도가 내국인에 비해 매우 높은 것이 중국인 범죄의 일반적인 특성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중국인 밀집지역인 구로는 폭력 범죄가 내국인과의 비교에서는 물론, 타 지역과의 비교에서도 높은 빈도로 나타난다. 따라서 폭력 범죄는 중국인 밀집지역에서 나타나는 중국인 범죄의 특성이라 말할 수 있다.

〈표 5〉 지역별 중국인-내국인간, 지역간 중국인 5대 범죄 비교 분석표

분류	지역별 중국인-내국인 비교 ^{a)}			지역간 중국인 비교 ^{a)}			비 고
	전 국	서 울	구 로	전국-서울	서울-구로	전국-구로	
5대범죄	x	x	○	x	○	○	
살 인	○	○	○	x	x	△	중국인 범죄의 일반적 특성
강 도	x	x	x	x	x	x	
성폭력	↓ ^{b)}	↓	↓	x	x	x	
절 도	↓	↓	↓	x	x	x	
폭 력	x	x	○	x	○	○	밀집지역의 중국인 범죄 특성

a) 중국인의 범죄 발생이 유의수준 5%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경우는 '○', 10%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경우는 '△'로 나타내었음.

b) '↓' 표시는 내국인의 범죄 발생이 유의수준 5%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경우임

또한 중국인 밀집지역 범죄의 또 다른 특성으로, 높은 살인범죄 발생빈도를 들 수 있다. 10만명당 살인사건 피의자 수는 구로구 중국인(20.0)은 서울 중국인(11.1)에 비해 거의 2배에 가깝고, 구로 내국인(2.9)의 6배가 넘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회귀분석 결과 구로구의 중국인과 내국인의 살인 범죄 발생빈도의 차이는 유의수준 1%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수치를 국제통계와 비교해 보면 그 심각성을 더 잘 알 수 있다. 아래 <표 6>는 인구 10만명당 살인범죄 발생 건수를 나타낸 표이다. 이 표에서 한국의 수치(평균 2.4)가 전국 또는 서울 내국인(2.4)과 유사함을 고려할 때, 구로구 중국인 살인 범죄율(20.0)은 미국(5.4)의 3.7배이고 일본(0.4)에 비해서는 50배에 달한다.¹³⁾

〈표 6〉 국제 공식범죄통계(UNODC)의 인구 10만명당 살인범죄 발생건수

(단위: 인구 10만명당 발생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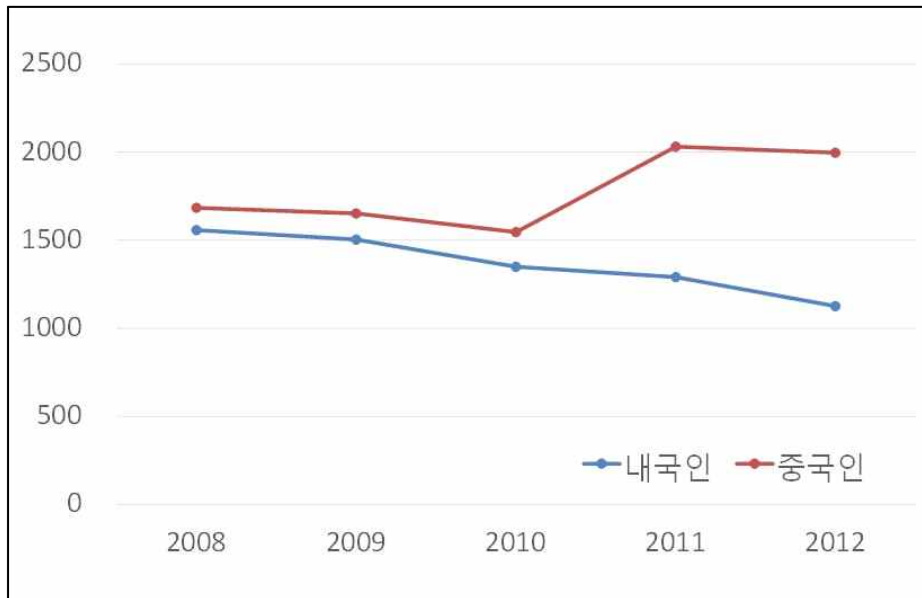
연도	한국	일본	캐나다	미국	체코	우크라이나	스웨덴	영국	이탈리아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2005	2.3	0.5	2.1	5.6	0.9	8.6	1.0	1.3	1.0	1.3	0.7
2006	2.3	0.5	1.9	5.7	1.0	8.1	0.9	1.3	1.1	1.5	0.7
2007	2.3	0.4	1.8	5.6	1.1	7.2	1.2	1.4	1.1	1.7	0.5
2008	2.3	0.5	1.8	5.3	0.8	7.0	0.8	1.2	1.0	1.2	0.5
2009	2.9	·	1.8	5	0.9	·	·	1.1	1.0	1.2	0.5
평균	2.4	0.4	1.8	5.4	0.9	7.7	0.9	1.2	1.0	1.3	0.60

자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3) 범죄 발생건수와 피의자 검거인수는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으나, 범죄율 수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수치상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 국제공식범죄 통계를 비교 대상으로 삼았다.

구로구 내국인의 5대 범죄는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이다. 이에 반해, 구로구 중국인의 5대 범죄는 폭력 범죄의 뚜렷한 증가세에 기인하여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서울의 중국인 범죄가 성폭력과 폭력에서 지속적으로 증가 경향을 보인 것과 비교해 볼 때, 중국인 밀집 지역에서는 폭력만이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인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폭력 범죄는 구로 내국인이 감소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지역내 중국인은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지역적인 영향보다는 밀집지역으로서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 구로의 내국인-중국인간 5대 범죄 연도별 추세 비교



4. 중국인 밀집지역에서 심각한 수준의 폭력¹⁴⁾ 범죄와 살인 범죄의 연관성

이제까지의 분석 결과로, 중국인 밀집지역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높은 폭력범죄와 높은 살인범죄 발생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이 왜 발생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해당지역 거주민, 경찰 관계자 면담조사를 통한 질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첫 번째 중국인 밀집지역의 범죄원인은 중국인의 문화적 특성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인터뷰에서 “술을 자주 마시는 다혈질이다. 특히 국내 중국인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계 중국인¹⁵⁾은 일반적인 한국인에 비해 공격적인 성향을 지녀 감정이 격해지면 집단 폭행을 시도

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특별법(주루 2인 이상의 집단이나 흉기를 사용한 폭행 등에 해당)

15) ('12년1월 기준) 국내 등록 중국인 499,962명 중 389,398명(77.8%)이 한국계 중국인이며, 구로구는 중국인

하거나 흉기를 사용하는 경향이 많다”와 같은 내용들이 주로 언급되었다. 이와 관련된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중국인들보다는 한국계 중국인들의 흉기 사용이 보통 한국 사람들에 비해 많은 편입니다. 이들은 중국내에서 무시를 받지 않기 위해서인지 누가 괴롭히면 흉기를 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 몸에 상처내는 경우도 많구요. 중국 영화 보면 갑자기 병을 깨서 자기 몸을 그어버리고 상대방 기를 죽이는 뭐 그런 종류라고 할까요(경찰청 외사정보과 000).

한국계 중국인들은 음주 문화에 한국 사람들 이상으로 다소 너그러운 편으로 주취폭력도 큰 사건만 아니면 합의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인지 이들은 음주 중 욕하는 경우가 많아 주취 폭력 사건이 많고, 주말에 친구들과 어울려 술 먹다가도 다른 지역 출신 한국계 중국인들과 싸움을 하기도 합니다(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000).

이러한 진술 내용은 중국인 밀집지역의 범죄 발생 원인을 사회해체이론에서 찾을 근거가 된다. 다시 말해 중국인 밀집지역에서는 한국사회와 단절되어 형성되는 중국인 고유의 문화가 있는데, 이는 주로 음주문화에 관대하며 감정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이다. 이러한 우발적이고 공격적 성향을 제어하는 비공식적인 사회통제기제가 외국인 밀집지역에서는 존재하기 않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수준의 폭력범죄가 발생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서울과 구로의 폭행범죄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특별법(폭처법)에 해당하는 범죄의 발생 빈도에 대해 내국인과 중국인을 비교하였다. <표 7>는 내국인과 중국인의 지역별 폭처법 범죄 피의자 수에 대해 서울과 구로를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표 7> 지역별 내국인-중국인의 폭처법 범죄 피의자수 비교

(단위: 10만명당 피의자수)

구분	전국		서울		구로	
	내국인	중국인	내국인	중국인	내국인	중국인
2008	280	302	353	349	378	762
2009	267	286	323	312	301	557
2010	219	301	251	309	222	536
2011	202	335	234	418	255	792
2012	209	519	222	522	199	707
평균	236	348	277	382	271	671

29,934명 중 한국계 중국인(28,387명)으로서 94.8%에 해당

이 <표 7>에서 보듯, 서울에서 중국인 폭처법 범죄는 내국인에 비해 전국에서 1.4배, 서울에서 1.3배에 불과하였으나, 구로에서는 폭처법 범죄가 내국인의 2.4배를 보였다. 이는 밀집지역에 비공식적 사회통제가 부재한 상황에서 중국인들의 공격적인 성향이 제어받지 않고 표출되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중국인 범죄의 일반적인 특성이라 할 수 있는 높은 살인범죄 발생빈도는 중국인 밀집지역인 구로구에서 더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구로구 중국인 밀집지역 중국인들의 높은 폭처법 위반 수준과도 무관하지 않다. 이러한 우발적인 폭력행사와 살인과의 관련성에 대한 담당자들의 면담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 모두 한국인에 비해 우발적인 범죄 발생 빈도가 높음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¹⁶⁾¹⁷⁾

한국계 중국인들은 예전부터 자기보호 차원 등으로 도구 사용에 적응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싸움이 격해지면 주변의 흥기를 이용해 위협 목적으로 상해를 가하거나 그 과정에서 순간적인 감정으로 인해 살인(미수)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잖이 많아요, 아마 싸움 중 70-80%는 살인, 상해와 같은 범죄로 이어지는 것 같네요(서울지방경찰청 의사과 ○○○).

구로구 중국인 밀집지역은 주로 저소득층 중국인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는데, 거기엔 술집도 많고, 혼자 거주하는 쪽방이 많고, 한번 시비가 붙으면 대부분 싸움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많고, 이로 인해 계획성은 없지만 주취 상태에서 흥기를 사용하여, 우발적으로 살인 또는 살인(미수)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시다, 아마 살인 범죄의 절반 이상은 싸움에서 비롯되고, 나머지는 거의 여자 문제나 임금 문제에서 비롯되는 것 같네요(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

중국인들은 타지에 있다보니, 주로 주말에 구로나 영등포 같이 중국 술집이 많은 곳에서 자기들끼리 어울리려고 해요. 특히 동향 친구 3-4명이 어울려 술을 마시는 경우가 잦은데, 술을 먹다가 사소한 시비라도 생기게 되면, 욱 하는 성격이 많아 여러 명이 같이 때리거나 깨진 술병을 가지고 싸우다가 피까지 흘리는 경우도 봤어요. 그래서 가게내에서 시비가 붙어 목소리가 커지면, 바로 가서 제지하려고 해요(한국계 중국인, 女 50대, 호프집 운영).

16) 내국인의 범죄도 우발 동기에 의한 경우가 많다. 실제로 박형민 외(2010:61-63)를 살펴보면 국내 폭처법 범죄의 경우 1999~2008년 간 우발 동기에 의한 범죄가 59.2%로서 절반이 넘는 수준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인터뷰에서는 내국인에 비해서도 중국인의 우발적 범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7) 또한 면담조사 내용을 뒷받침하는 언론기사도 다수 있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술을 마시던 중 옆좌석에서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하자 격분하여 살해”(지방경찰청 의사과 보고자료, 최영신 외(2012: 178)에서 인용), “외국인 운운하며 나쁜 소리를 하는 것에 흥분하여 살해”(지방경찰청 의사과 보고자료, 최영신 외(2012: 178)에서 인용), “술 취해 후배에 흥기 휘두른 중국동포 쇠고랑”(2012.6.27, 연합뉴스), “술 취한 조 선족 왜 술주정하나 행인 흥기 살해”(2007.4.30, 뉴스시스)

따라서 이러한 흥분상태의 흥기사용이 단순한 위협이나 신변 보호에 그치지 않고 타인을 향해 감정적으로 사용하는 경향으로 인해, 흥기 사용이 살인 또는 살인 미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할 수 있다¹⁸⁾.

그리고, 면담조사 중에는 지역환경 문제가 항상 언급되었는데, 이만큼 중국인 주민들 역시 지역 이미지 개선 및 지역활성화 등을 위해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다.

구로구 중국인들은 가리봉을 비롯하여, 구로동·개봉동 등에 거주하고 있지만, **구로구 중국인 범죄는 중국 상권이 밀집되어 있는 가리봉동에서 주로 발생한다고 보아도 무리는 아니며, 특히 폭행 사건은 거의 가리봉동에서 일어난다고 봐야 할 겁니다(서울지방경찰청 외사과 ○○○).**

여기 가리봉동은 다른 중국인 거리보다 낙후되고, 사람들도 막노동 하거나 별로 돈을 벌지 못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어, 술만 먹었다 하면 술주정하며 싸우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아마 재개발되기 전까지는 지역 분위기가 바뀌기는 어려울 거예요, 인근 대림동만 해도 좀 나은 것 같던데 말입니다(한국계 중국인, 男 40대, 식료품점 운영).**

또한, 면담 과정에서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는데, 흥기사용 및 그로 인한 살인 및 살인미수 범죄는 내국인들을 그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주로 중국인들 간에 발생하고 있음을 면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¹⁹⁾.

중국인들이 야간이나 주말에 구로, 영등포 등 중국상권 지역에 많이 모이기 때문에 음주전후 그들간에 폭력범죄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 같은 싸움 또는 여자 문제가 지나친 나머지 살인 사건도 종종 발생하는데, **한국 사람이 관련되는 경우는 드문 것 같아요(경찰청 외사정보과 ○○○).**

중국인의 살인이나 폭력사건들은 대부분 **중국인들간에 시비에서 비롯되거나 여자문제 등으로 인한 감정 격앙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죠(서울지방경찰청 외사과 ○○○).**

마지막으로, 중국인 특성에 근거한 범죄예방적인 정보도 얻을 수 있었다. 이들이 아무래도 신분이 불안한 외국인인 만큼, 경찰의 가시적인 활동과 강제퇴거²⁰⁾와 같은 현장 또는 제도적 조치에 적

18) 이러한 특성은 베트남 등 동남아 출신 외국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경기도 안산, 시흥 등의 외국인 밀집지역에서도 폭력법 범죄가 국내인은 물론, 다른 지역(전국 평균)의 외국인보다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는 최영신 외(2012)의 연구를 고려할 때, 단순히 국내 중국인들만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19) 피해자 관련 통계는 시스템상 산출이 불가하여, 면담을 통해 주된 피해자를 확인함.

20)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외국인이 국내 실정법 위반시 강제퇴거할 수 있다. (임의 규정)

【출입국관리법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①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이 장에 규

값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었다.

중국인들간 상해 사건이나 살인 사건을 조사하다보면, 많은 경우에 싸움도 우발적으로 일어날 뿐 더러 살인 또는 살인 미수도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많은데, **중국인들이 의외로 순찰차의 경광등이나 사이렌을 많이 의식하므로, 이들의 이 같은 특성을 이용하여 가시적인 순찰활동에 집중한다면 범죄율 감소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 ○).

한국에 있는 중국인들은 대부분 돈벌이 등 목적을 가지고 중국에서 꽤 많은 돈을 써서 입국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한국에서 죄를 지게 될 때 강제 추방을 하게 되면, 아마 함부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정신 똑바로 차리는 사람이 꽤 있을 거예요**(한국계 중국인, 女 40대, 중국 음식점 운영).

이상의 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우발적인 폭력이 일반적 중국인 범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것은 중국인 밀집지역의 중국인 범죄에서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또한 폭력이나 살인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발생하기 보다는 중국인간의 시비로 인해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폭력과 살인은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폭력이 우발적 살인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음을 현장 면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V. 정책제언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대표적인 중국인 밀집지역인 서울시 구로구 중국인 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실제 중국인 밀집지역의 범죄 특성과 그 원인을 고찰하였다. 첫째, 본 연구에

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1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1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영주자격을 가진 자의 강제퇴거)】 법 제46조제2항제2호에서 "법무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강제퇴거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1.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또는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중 강도의 죄를 범한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를 범한 자

3.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를 범한 자 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5조의4·제5조의5·제5조의9 또는 제11조 위반의 죄를 범한 자 5.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 6.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의 죄를 범한 자

7.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

서는 일반적인 중국인 범죄에 대해서는 인지된 위협과 실제 위협이 범죄유형별로 다르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중국인 범죄빈도가 훨씬 클 것으로 인식되어왔지만, 연구대상기간('08~'12)동안 전국과 서울의 5대 범죄 전체를 대상으로 고찰하였을 경우, 중국인과 내국인의 범죄 빈도는 차이가 없었다. 도리어, 성폭력과 절도의 경우, 내국인의 범죄 발생 빈도가 중국인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살인의 경우, 전국과 서울 모두 중국인의 범죄 빈도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는 중국인 범죄에 대한 내국인들의 인지된 위협의 타당성을 부분적으로만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5대 범죄 중 살인을 제외한다면 중국인 범죄에 대한 내국인들의 인식이 객관적인 범죄 발생 현실에 근거하기보다는 중국인 범죄에 대한 언론보도 등 개인이 인지하는 주관적인 요소에 의해 생성된 편견에 근거하고 있다 할 수 있다. 더욱이 살인 범죄 발생 역시 중국인들간 주로 발생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내국인에게 인지된 일반적인 중국인 범죄의 위협은 실제보다 과장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둘째, 중국인 '밀집'지역 고유의 범죄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 밀집지역인 구로구의 중국인 범죄가 살인, 폭력 범죄에 있어 비밀집지역인 전국과 서울의 중국인 범죄 빈도와 비교했을 때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인 밀집지역의 범죄 발생에 대해 일반인들이 느끼는 두려움이 오해가 아님을 반증한다. 하지만 성폭력과 절도는 중국인 밀집지역의 고유의 위협이라고 보기 어렵다. 전국과 서울의 중국인 범죄와 빈도가 비슷하고, 구로 내국인의 절반수준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유형의 범죄에 대해서는 감정적인 오해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범죄위험이 높은지 낮은지에 대한 연구 보다는 어느 유형의 범죄가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더 많이 나타나는지에 대한 연구가 앞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

셋째, 중국인 밀집지역 고유의 범죄위험의 원인은 문화적인 요인과 사회해체이론의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중국인 밀집지역에서 발생하는 범죄 특성과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관련자 면담 등을 진행한 결과 폭행 범죄 중 폭처법 범죄(폭행시 2인 이상 집단 폭행 또는 흉기 사용 등에 해당)와 살인 범죄간의 연관성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폭처법 범죄는 같은 중국인 사이에서도 서울 지역보다 중국인 밀집지역인 구로구에서 더 높은 비율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해당지역 실무자와의 면담 결과 일반적인 범죄 행태에 비해 우발적인 폭력 행위가 살인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함을 확인하였다. 이것은 중국인들이 음주문화에 관대하고 해외 이주에 따라 지역사회 내부에서의 범죄를 통제할 수 있는 규범적 문화적 요인들이 약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주류 사회와 단절된 구로 중국인 밀집지역에서는 중국인의 관대한 음주문화는 심화되고, 해외 이주에 따른 규범적 요인은 더욱 약화되어, 폭력 범죄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중국인 범죄의 증가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 대응의 필요성이다. 구로구 중국인 밀집지역은 물론, 서울과 전국에서도 공통

적으로 폭력 범죄 등을 중심으로 중국인의 5대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중국인들이 신분이 다소 불안하고 공권력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는 외국인 신분인 만큼, 제도적으로는 중국인 강력 범죄자에 대한 강제퇴거 조치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특히 욕설 등 감정적인 언행이 보이거나 심각한 범죄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그 진행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 특히, 경찰은 중국인 밀집지역의 폭행 및 시비 신고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중국인 범죄 관련 신고 접수시에는 접수자가 이에 대한 사전 지식을 가지고 상황을 파악하여 상황에 맞는 적절한 지령²¹⁾을 해야 할 것이고, 현장 경찰관은 보다 신속히 출동하여 분란을 조기 차단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덧붙여 중국인 밀집지역 현장에서는 경광등·싸이렌을 활용한 가시적인 순찰활동 등이 중국인 범죄 감소 및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의 관점에서 구로구 중국인 밀집지역의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구로구 중국인 밀집지역은 폐쇄적이고 내국인과 단절된 특성을 보이고 있는데, 도시 및 건축 공간 설계 시 범죄기회를 제거하거나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계획·변경한다면 범죄 및 불안감을 저감시킬 수 있을 것이다(강석진, 2013). 또한 개방적이고 친화적인 환경 조성 등을 통해 지역 환경을 개선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 뿐 아니라, 구로구 중국인 밀집지역의 고유한 중국인 범죄 특성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사회해체이론의 관점에서, 중국인 밀집지역의 비공식적 사회통제 장치를 강화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원주민들과의 문화적 장벽을 허물고 유대 관계를 확보하기 위한 타 지역의 제도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경남 김해에서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 명예경찰 제도²²⁾나 경기도 안산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원 순찰대²³⁾ 제도, 또는 귀화 외국인을 경찰로 선발하여 외국인 범죄 예방 등 일상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면 사전적 범죄 예방 조치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은 한계와 과제를 지닌다. 당초에는 보다 구체적인 정보 습득을 위해 ‘구로구 가리봉동의 한국계 중국인’ 범죄 통계 파악을 시도하였으나 현재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상으로는 구(區) 단위의 범죄통계 산출만 가능하고, 동(洞) 단위 범죄 통계는 산출은 가능했으나 시스템상 중복과 오류가 많아 전혀 신뢰할 수 없었으며, 범죄 피의자는 국적별로 구분되어 있을 뿐, 한국

21) 경찰의 112신고센터에서는 Code 0~3 Level의 4단계 중요도에 따라 지구대나 파출소의 현장 경찰관에게 지령을 하게 되는데, 「Code 0」은 가장 우선되는 지령으로서 주로 살인범죄가 진행되고 있는 등 즉시 제지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중요도가 있는 단계로 「Code 0」지령이 떨어지면, 다른 신고출동 및 업무보다도 우선되어 처리하게 된다. 그 이후로는 중요도에 따라 지령 단계를 달리하는데, 술자리에서의 시비·감정적인 언행 등이나 단순 폭행 등은 주로 일반적인 사건 신고로 분류되는 「Code 2」로 발령된다. (「Code 0~1」은 강력범죄 등으로 인한 위급상황시에 주로 발령하는데, '12.4月 오원춘 사건시 살해 여대생의 신고는 「Code 1」으로 분류되었다.)

22) 「『외국인 명예경찰』 범죄예방 나선다」(문화일보 2013. 9. 9)

23) 「안산경찰, 『외국인 자원 순찰대』결성」('12.3.25, 뉴스1, <http://news1.kr/articles/603138>)

계 중국인을 따로 구분할 수 없었다. 또한, 면담 조사는 약 3개월('13.3~6월)에 걸쳐 이루어졌으나, 더욱 심층적인 정보 획득을 위해 상당 기간 지속될 필요가 있으며, 좀 더 보편타당한 연구 결과 도출을 위해서는 구로구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국내 다른 지역의 중국인 밀집지역이나 외국의 차이나타운의 현상까지도 아우를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는 암수범죄에 대한 분석을 배제하고 있다는 한계 역시 존재한다. 면접조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밀집지역 중국인 범죄는 중국인 동류집단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불법체류자 중국인의 경우에는 범죄피해 신고 자체가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중국인 밀집지역의 범죄 발생 빈도가 과소집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상황이 실제 발생한다면 치안 통계와 치안 현실의 괴리가 발생하여 적절한 치안대책 수립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논문은 우리나라가 다문화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으며, 최근 출범한 정부에서도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강조하는 등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외국인 범죄가 자리잡지 못하도록 한정된 치안력의 효과적인 투입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적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 의미가 있다.

참고문헌

- 강석진 (2013). 「범죄예방설계(CPTED) 가이드라인」, 서울특별시, pp. 5
- 김은경 외 (2009). 「2008년 한국의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연구(VI)」.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박형민 외 (2010). 폭력범죄의 유형과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병기 외 (1995). 「범죄보도가 시민의 범죄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최영신 외 (2012). 「외국인 밀집지역의 범죄와 치안실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최인섭 외 (1997). 「범죄의 두려움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기현 (2011). 다문화사회 경찰행정의 역할,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한국지방정부학회, pp. 519-520.
- 김영로 (2011). 중국동포(Chinese-Korean) 집단적 거주지에 나타난 지역사회에 대한 중국동포의 인식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3-3. pp. 133-156.
- 김윤영 (2007). 외국인밀집지역의 치안확보 방안 연구. 「치안정책연구」. 21. pp. 76-118.
- 김윤영 외 (2012). 국내체류 외국인밀집지역 치안역량 강화방안. 「한국경찰학회보」. 36. pp. 3-29
- 김은미 외 (2008). 다인종·다민족 사회의 형성과 사회 조직 - 서울의 외국인 마을 사례. 「한국 사회학」. 42-2. pp. 1-35.

- 김준호 외 (2001). 범죄유형별 심각성 가중치를 이용한 범죄발생의 질적 분포와 추세. 「형사정책연구」. 48. pp. 91-142.
- 김현선 (2010). 한국체류 조선족의 밀집거주 지역과 정주의식 - 서울시 구로·영등포구를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87. pp. 231-264.
- 문경희 (2006). 한국에서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 모색-결혼이주여성 중심으로. 「한국국제정치학회 학술대회발표논문집」. 한국국제정치학회. pp. 46-48.
- 민수홍 (2011). 범죄 두려움 : 통계청 사회조사 자료분석. 「경찰학논총」. 6-1. pp. 155-176.
- 박동균 (2003). 중소도시의 범죄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연구 : 안동시를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6. p. 83.
- 박세훈 외 (2009). 다문화사회에 대응하는 도시정책 연구 (1) 외국인 밀집지역의 현황과 정책과제. 「국토연구」. 19. 국토연구원.
- 박세훈 (2010). 한국의 외국인 밀집지역 : 역사적 형성과정과 사회 공간적 변화. 「도시행정학보」. 23-1. pp. 69-100.
- 박순진 (2012). 범죄발생 추세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 과장된 인식과 자기 편향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제23권 제3호.
- 박윤희 (2010). 수도권 지역 외국인들의 거주지 분리에 대한 연구. 「행정논총」. 48-4. pp. 429-453.
- 박재영 (2008). 유럽 다문화사회의 문화충돌 영국·프랑스·독일을 중심으로. 「다문화연구」. 5.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pp. 107-138.
- 박희제 (2001). 일반시민들의 과학에 대한 인식을 결정하는 요인들. 「한국사회학」. 35-6. p. 31.
- 방성훈 외 (2012). 한국계 중국인 밀집주거지의 분화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정책」. 19-2. pp. 39-68.
- 방성훈 외 (2012). 범죄현상에 관한 사회생태학적 접근 : 지역요인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23-2. pp. 259-292.
- 양계민 (2009). 한민족정체성과 자민족중심주의가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0-4.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pp. 388-394.
- 염운옥 (2011). 영국 다문화주의의 위기와 모색. 「철학과 현실」. 91. 철학문화연구소. pp 32-43.
- 오경석 (2009). 한국의 다문화주의 : 특징과 과제. 「이민인종연구회」. 1. pp. 11-17.
- 원숙연 (2008). 다문화주의시대 소수자정책의 차별적 포섭과 배제 : 외국인 대상 정책을 중심으로한 탐색적 접근. 「한국행정학보」. 42-3. pp. 29-49.
- 윤영환 (2009). 외국인 커뮤니티에 대한 치안확보 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보」. 35. pp. 139-183.
- 윤인진 (2008).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전개와 특성. 「한국사회학」. 42-2. pp. 72-103.
- 윤인진 (2011). 한국인의 국민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다문화 수용성. 「통일문제연구」. 23-1. pp. 143-192.
- 이노미 (2011). 국내 외국인 소수집단 거주지의 갈등과 연대 - 이태원 무슬림 거주지를 중심으로. 「

- 한국문화연구원논총」. 21. pp. 237-264.
- 이삼식 (2012). 외국인 유입에 관한 국민인식과 시사점. 「보건·복지 Issue & Focus」. 21. pp. 2-8.
- 이영식 외 (2008). 치안환경과 관광객의 안전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10-2. pp. 174-176.
- 이상준 (2007). 중국 조선족 동포들의 국내 이주. 「국토연구」. 306. pp. 132 -135.
- 이성식 (1997). 범죄피해에 있어 개인수준 요인들의 지역조건적 효과. 「한국공안행정학회보」. 7. pp. 85-109.
- 이성식 (2000). 지역사회 경찰활동과 범죄두려움.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0. pp. 134-159.
- 임동진 (2012). 다문화주의와 다문화정책에 대한 정책참여자들의 태도와 성향 분석.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6-2. pp. 30-39.
- 장승진 (2010). 다문화주의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 : 경제적 이해관계와 국가 정체성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44-3. pp. 100-104.
- 장임숙 (2011). 대학생의 특성유형에 따른 다문화인식과 이주인권정책에 대한 태도. 「한국지방정부학회 추계학술대회」. pp. 10-14.
- 전대양 (2011). 외국인 조직범죄의 실태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과학연구」. 18-2. pp. 10-14.
- 조정인 (2011). 누가 왜 여성결혼이민자들과 생산가능직 근로자들의 유입 증가를 반대하는가 - 문화적 위협변인과 경제적 위협변인의 영향력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45-2. pp. 297.
- 조현미 (2006). 외국인 밀집지역에서의 에스닉 커뮤니티의 형성.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2-5. pp. 540-556.
- 지종화 (2009). 한국의 다문화 국가 현상과 새로운 정책모형. 「지방정부연구」. 13-2. pp. 113-120.
- 최은영 (2003). 거주지 분리 연구의 비공간적 전통을 넘어: 공간지수를 중심으로. 「지리교육논총」. 47. pp. 23-35.
- 홍영기 (2010). 일반인의 범죄인식이 형사사법에 미치는 영향. 「고려법학」. 57. pp. 34.
- 홍세영 (2011). 외국인 범죄 실태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교정연구」. 52. pp. 25-51.
- 황지태 (2009). 공식통계와 범죄피해조사의 상반된 결과에 대한 설명 : 범죄 감소의 직접적 요인 설명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20-1. pp. 279-300.
- Fetzer, J. S. (2000), *Public attitudes toward immigration in the United States, France, and Germa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lorida, R. (2002). *The Rise of the Creative Class*. Basic Books.
- Lewis, D. A., & Salem, G. W. (1986). *Fear of Crime: Incivility and the Production of a Social Problem*.

Transaction Pub.

- Maguire, K., & Pastore, A. L. (1999). *Sourcebook of Criminal Justice Statistics*. Hindelang Criminal Justice Research Center.
- Massey, D. S., & Denton, N. A. (1993). *American Apartheid: Segregation and the Making of the Underclas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Roberts, L., & Indermaur, D. (2009). *What Australians think about crime and justice: Results from the 2007 Survey of Social Attitudes*. Australian Institute of Criminology
- Rex, J., & Mason, D. (1986). *Theories of Race and Ethnic Relati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kogan, W. G. (1990). *Disorder and decline: Crime and the spiral of decay in American neighbourhoods*. University of California Pr.
- Taylor, R. B. (1999), The incivilities thesis: Theory, measurement, and policy. *Measuring What matters*. 65-88.
- Viviani, N. (1996). *The Indochinese in Australia : 1975 ~1995*. Oxford University Press.
- Wilson, J. Q. (1975). *Thinking About Crime*. New York: Basic Books.
- Barro, R. J. & Sala-i-Martin, X. (1992). Convergenc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0-2. 223-251.
- Berman, S. (1997). Civil society and the collapse of the Weimar Republic. *World politics*, 49-3. 401-429.
- Borjas, G. J. (2002). Homeownership in the immigrant population. *Journal of Urban Economics*, 52-3. 448-476.
- Chandler, C. R., & Tsai, Y. M. (2001). Social Factors Influencing Immigration Attitudes: An Analysis of Data from the General Social Survey. *Social Science Journal*, 38-2. 177-188.
- Citrin, J., Green, D. P., Muste, C., & Wong, C. (1997). Public opinion toward immigration reform: The role of economic motivations, *Journal of Politics*. 59-3. 858-881.
- Cornelius, W. A., & Rosenblum, M. R. (2005). Immigration and Politics,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8. 99-119.
- Cwerner, S. B. (2001). The Times of Migration.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27-1. 7-36.
- Davis, B., & Dossetor, K. (2010). (Mis)perceptions of crime in Australia, *Trend & Issues in Crime and Criminal Justice*. 396. 1-6.
- Dustman, C., & Preston, I. P. (2007). Racial and Economic Factors in Attitudes to Immigration. *The B.E. Journal of Economic Analysis & Policy*. 7. 1.
- Garofalo, J., & Laub, J. (1978). The Fear of Crime: Broadening Our Perspective. *Victimology*. 3-3. 242-253.
- Garofalo, J. (1979). Victimization and the fear of crime.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e*.

16-1. 80-97.

- Hunter, A. (1978), Symbols of incivility: social disorder and fear of crime in urban neighborhood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Society of Criminology.
- Jackson, J. S., Brown, K. T., Brown, T. N., & Marks, B. (2001). Contemporary Immigration Policy Orientations Among Dominant-Group Members in Western Europe. *Journal of Social Issues*. 57-3. 431-456.
- Jackson, J. S. (2004). Experience and expression: Social and cultural significant in the fear of crime.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44-6. 946-966.
- Jones, F. L., & Smith, P. (2001). Diversity and Commonality in National Identities: An Exploratory Analysis of Cross- National Patterns. *Journal of Sociology*. 37-1. 45-63.
- Kelling and Wilson(1982). Broken Windows: The Police and Neighborhood Safety. *Atlantic Monthly*. 249. 29-38.
- Krivo, L. J. (1995). Immigrant characteristics and Hispanic- Anglo housing inequality. *Demography*. 32-4. 599-615.
- Sampson, R. J., & Groves, W. B. (1989). Community structure and crime: Testing social-disorganization theor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4. 774-802.
- Wood, P. K. & Gilbert, L. (2005). Multiculturalism in Canada: Accidental Discourse, Alternative Vision, Urban Practice.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29-3. 679-691.

A Study on Foreigner Crime and Public Security Threat in Expatriates Enclave: The Characteristics of Chinese Crimes in Guro District

Kim, Byunghak, Ko, Kilkon, & Kim, Daejoong

As South Korea gradually enters into the multicultural society, the crimes committed by expatriates are considered as a new threat of public security. Against this context, this study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and causes of Chinese immigrants' crimes focusing on Guro district in Seoul. We used the Korean Information System of Criminal Justice Services for the analysis of the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expatriates' crime. According to regression analysis of the data, there is no statistically significance in the violent crime rate between the Chinese expatriates and Koreans. However, Guro District densely populated with the Chinese shows the higher rate of murder and assault. Hence, the concentration, not the foreigner itself, can be one of causes of the violent crime. Moreover, our interview with the police and residents reveals that most violent crimes accidentally happen under the weakened informal social control. Therefore, establishing the immediate response system to physical violences can help prevent more serious crimes.

[Key Words: Foreign workers' enclave, Foreigner Crime, Social Disorganization Theory]